



영부인 예복으로 본

韓服의 흐름

근세에서 현대까지

영부인 예복으로 본
韓服의 흐름
근세에서 현대까지

차 례

7

이승만대통령 — 프란체스카여사

17

윤보선대통령 — 공덕귀여사

29

박정희대통령 — 육영수여사

33

최규하대통령 — 홍기여사

41

전두환대통령 — 이순자여사

51

노태우대통령 — 김옥숙여사

59

김영삼대통령 — 손명순여사

63

김대중대통령 — 이희호여사

71

論文 논문

현대 한복과 영부인 복식 조효숙

94

作品目錄 작품목록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영부인의 예복

이 덕 실 | 경운박물관 운영위원장

경운 박물관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영부인 예복으로 본 한복의 흐름” 전시를 합니다. 이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전시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복은 삼국시대 이래 지금까지 자연스런 선과 형태에서 우리의 문화와 얼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는 사람의 신분이나 나이 혹은 계절에 따라 색상과 소재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일상복이 서양복으로 획일화 되면서 생활 한복이라는 개량옷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으나 우리 옷의 멋과 품격을 충분히 느끼기 어려우며, 아직은 전통한복이 명절이나 결혼식, 공식 행사 등에서 중요한 예복의 역할을 합니다.

이번 영부인의 취임식 의상 전시에서는 예복으로서의 한복의 특징과 변화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격변하는 시대를 보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끝으로 왕권에서 민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흑백에서 칼라로 급변하는 시대를 살면서 한국의 여성을 대변했던 영부인들이 그 시대정신에 어울리는 한복으로 그들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구현하며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미를 보일 수 있도록 고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영부인은 속옷까지도 기워 입는 절약 정신을, 경제 발전을 이루던 시절의 영부인은 우아한 아름다움을, 또는 차분함과 단아함을 보여주고 바느질에서도 아름다움과 입고 활동하기에 편안함을 아울러 발전시킴도 보게 됩니다.

아쉬운 것은 고고한 기품과 아름다운 한복 모습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으셨던 고 육영수 여사의 예복을 이 책에 실지 못한 점입니다. 또한 작은 박물관 전시실 사정상 여러 역사적 현장에 있었던 다양한 한복들을 다 전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운 박물관 1주년 개관 기념으로 이런 귀한 전시를 최초로 기획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협조해주신 역대 영부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승만대통령 프란체스카여사

1948 - 1960

프란체스카여사는 국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공식 행사는 물론 일반 외출시에도 비교적 한복을 즐겨 입었다. 워낙 검소하여 인조견이나 목면과 같이 그 당시 일반 서민들이 입던 검소한 옷감을 많이 사용하였고, 자수나 화려한 장식 없이 평범하고 소박하게 입었다. 또한 착용시의 미적 아름다움 보다는 활동에 편리한 실용성에 중점을 두어 개량형의 한복을 즐겨 입었다.



1956. 8. 15 제3대 대통령 취임식.



오른쪽 두루마기를 입고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서명하는 모습.



1 두루마기 周衣

1948년 Overcoat for Men, Linen 길이 118cm 화장 73.5cm

이승만 대통령이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서명할 때 착용했던 두루마기이다.

소색(素色)의 모시로 만들었다. 형태를 개량하여

고름 대신 단추로 여미도록 만들었다.



2 저고리 赤古里

1950년대 Jacket for Men, Silk 길이 44cm 화장 72cm

이승만 대통령이 평상시 착용하였던 저고리이다.

소색(素色)의 향라(尙羅)를 겹감으로 하고 다듬은 명주로 안감을 하였으며 동정은 명주로 하였다. 형태를 개량하여 고름 대신에 단추로 여미도록 만들었다.



3 버선 襪

1950년대 Socks for Men, Cotton

이승만 대통령이 평상시 착용하였던 버선과 대님이다.

4 바지 赤々

1950년대 Trousers for Men, Silk 길이 102cm
이승만 대통령이 평상시 착용하였던 바지이다.
안감과 겉감 모두 소색(素色)의 생초로 만들었다.





이화장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



5 저고리 赤古里

1960년 전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32.5cm 화장 63cm
프란체스카 여사가 경무대(景武臺)말기에 착용하였던 저고리이다.
겉감은 옥색 은사양단이며 안감은 인조 은반견으로 하였다.

6 치마 赤巾

1960년 전후 Skirt for Women 길이 105cm
프란체스카 여사가 경무대(景武臺)말기에 착용하였던 치마이다.
조끼허리가 달린 개량형의 통치마로 뒤쪽은
풀치마의 느낌을 살려주었다.
겉감은 옥색 은사양단이며 안감은 은반견으로 하였다.



윤보선대통령 공덕귀여사

1960 - 1962

공덕귀 여사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이며 신교육을 받은 여성이었지만 아흔 아홉 칸 한옥에서 살아온 전통적인 양반가의 여인답게, 양장보다는 점잖은 한복을 착용하였다. 재임 당시의 혼란한 시대적 배경과, 짧은 재임기간 때문에 그의 한복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외부와의 접촉이 없었고, 따라서 한복 패션의 리더 역할은 하지 못했다.



1960. 8. 30 제4대 대통령 취임식 후 기념사진.



7 중절모와 구두

1960년 Shoes and Hat for Men
 윤보선 대통령이 연미복과 함께 착용하였던
 구두와 중절모이다.
 구두는 검정색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중절모는 회색의 펠트로 되어있다.

8 취임식 예복

1960년 Tuxedo for Men, Wool
 윤보선 대통령이 제4대 대통령 취임식 때
 착용하였던 예복이다.
 검정색의 턱시도와 조끼, 바지로 구성되어 있다.
 턱시도는 영국에서 만들어졌으며 뒷길 안감은 누
 비로 되어있고, 안감에 Simpson Piccadilly라는
 Brand가 명시되어있다.
 바지의 옆선에 2줄의 tape장식이 되어있다.





청와대 정원에서 애견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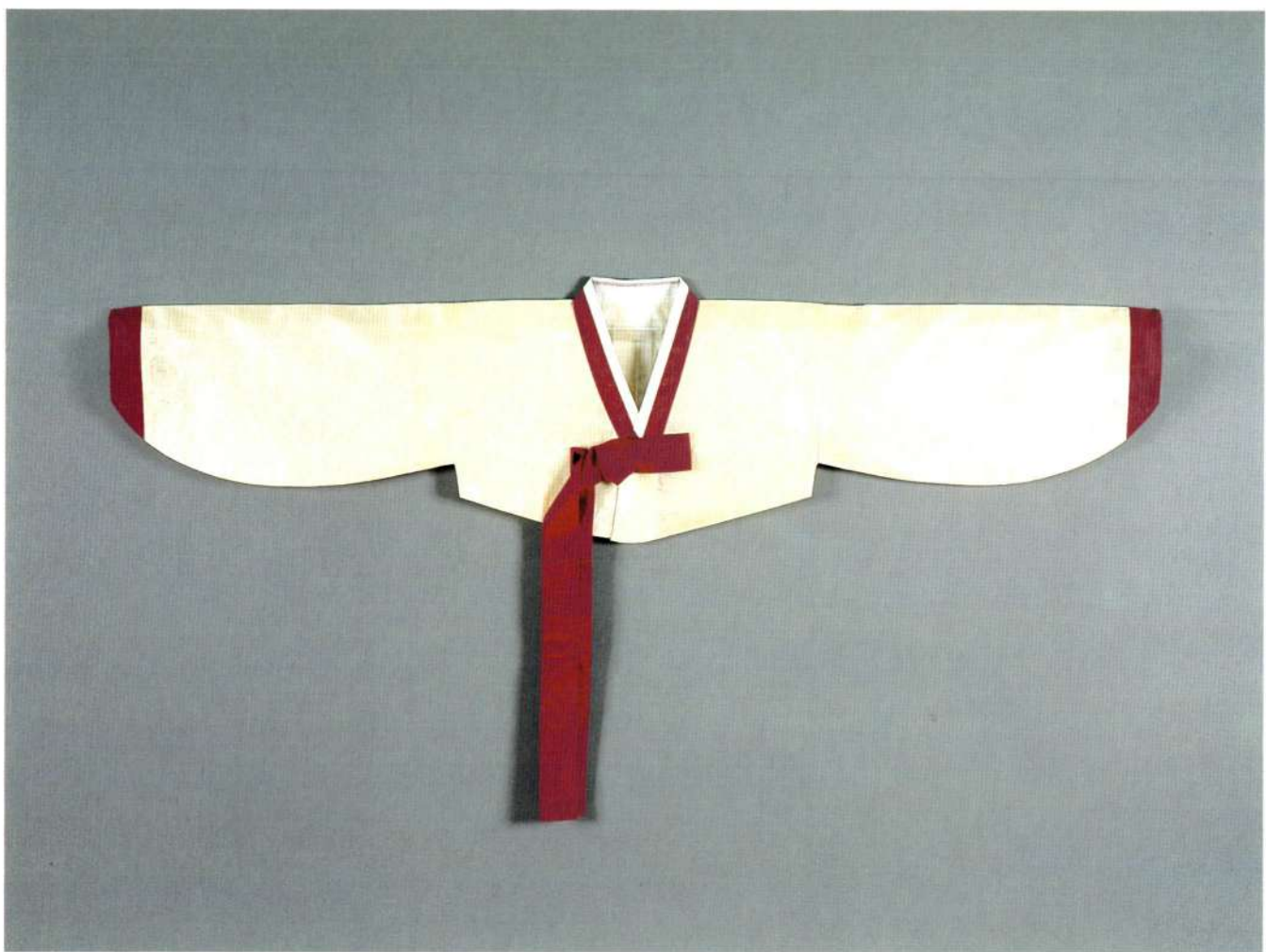


9 두루마기 周衣

1960년대 Overcoat for Women, Silk 길이 123cm 확장 74.5cm

공덕귀 여사가 착용했던 두루마기이다.

겉감은 팔죽색의 수직실크이며 안감은 분홍색
교직양단으로 하였다.



10 반회장 저고리 半回装 赤古里

1960년대 Jacket for Women, Linen 길이 29.5cm 화장 72cm
 공덕귀여사가 저녁 연회에 착용하였던 저고리이다.
 겹감은 미색 속고사로 하고 깃과 고름, 끝동은 자주색으로 하였다.

11 치마 赤竹

1960년대 Skirt for Women 길이 113cm
 공덕귀여사가 저녁 연회에 착용하였던 치마이다.
 겹감은 미색 속고사로 하고 안감은 흰색 나일론 은조사로 만든 겹치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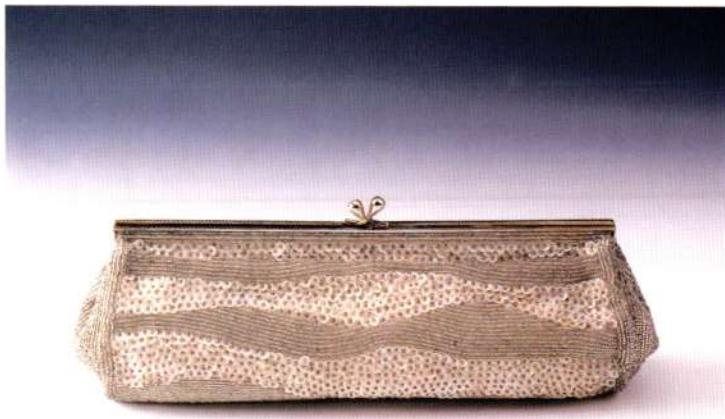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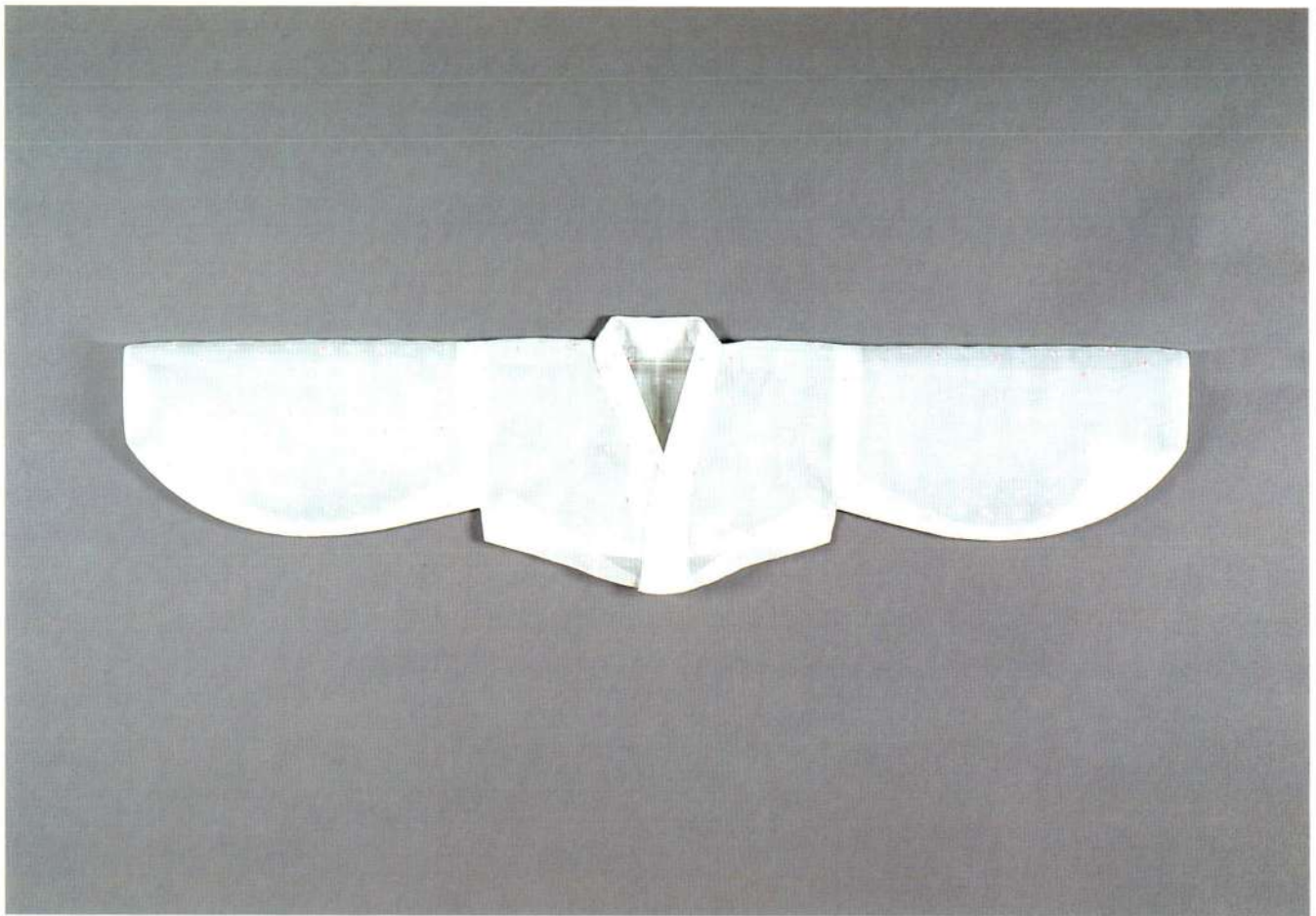
12 저고리 赤古里

1960년대 Jacket for Women, Linen 길이 29cm 화장 75cm
공덕귀여사가 저녁 연회에 착용하였던 저고리이다.
겉감은 황색 공단에 무궁화 자수를 놓았고
안감은 인견 호박단으로 만들었다.

13 치마 赤々

1960년대 Skirt for Women 길이 113cm
공덕귀여사가 저녁 연회에 착용하였던 치마이다.
겉감은 황색 공단에 무궁화 자수를 놓았고
안감은 인견 호박단으로 만들었다.





14 저고리 赤古里

1960년대 Jacket for Women, Linen 길이 29cm 화장 75cm

궁덕귀 여사가 평상시 착용하였던 저고리이다.

옥색의 목아사로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소화문(小花紋)의 수가 놓여져 있다. 고름이 없으며 브로치를 달아서 여며 입은 흔적이 있다.

15 핸드백

1960년대 Hand Bag for Women

구슬과 스팅글로 장식된 핸드백이다.

8

8

박정희대통령 육영수여사

1963 - 1974

육영수 여사는 1963년부터 1974년 작고 할 때 까지 12년간 영부인으로 재임하였다. 대통령 취임식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식행사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한복을 즐겨 입었으며, 역대 영부인 중에 가장 한복을 우아하게 입어서 한복패션의 리더역할을 훌륭하게 하였다. 육여사의 평범하면서도 품격이 우러나는 한복 영향으로 재임 기간 중에는 많은 여성들이 한복을 애용하였고, 따라서 한복용 섬유산업이 매우 발전하였다.



1968. 9 뉴질랜드 방문.



16 봉황 자수

1964년 Skirt for Women

육영수 여사가 독일 방문시 입어서 찬사를 받았던 치마의 아랫단에 놓여진 자수이다. 미색의 공단에 무궁화와 공작을 손수로 놓았다





최규하대통령 홍기여사

1979 - 1980

홍기여사 역시 재임기간이 짧아, 특징적인 옷차림이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전통적 부덕을 지닌 조용한 성격을 말해주듯 언
제나 한복을 즐겨 입었고 검소하고 소박한 차림을 좋아했다. 취임 후
자신을 '살림이 취미인 구식여자' 라고 소개한 바와 같이 한복의 소재
나 형태도 유행을 따르지 않고 옛 방식을 고수하였다.



1972. 12. 28 제10대 대통령 취임식.





17 저고리 赤古里

1980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28.5cm 화장 67cm
홍기 여사가 저녁 연회에서 착용하였던
저고리이다.
옥색 뉴뚝바탕에, 절지형의 꽃무늬를
날염하였다.

18 치마 赤々

1980년 Skirt for Women 길이 108.5cm
홍기 여사가 저녁 연회에서 착용하였던
치마이다.
옥색 뉴뚝 바탕에 절지형의 꽃무늬를
날염하였다.





19 저고리 赤古里

1980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28.5cm 화장 67cm
홍기 여사가 저녁 연회에서 착용하였던 저고리이다.
겉감은 황금색 공단바탕에 모란꽃을 수놓았다.

20 치마 赤巾

1980년 Skirt for Women 길이 117cm
홍기 여사가 저녁 연회에서 착용하였던 치마이다.
겉감은 황금색 공단에 모란꽃을 수놓았다.





21 저고리 赤古里

1980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28cm 화장 66.5cm
 홍기 여사가 저녁 연회에서 착용하였던 저고리이다.
 겹감은 분홍색 은사양단으로 하고 안감은 나일론 노방주로 하였다.

22 치마 赤巾

1980년 Skirt for Women, Silk 길이 113cm
 홍기 여사가 저녁 연회에서 착용하였던 치마이다.
 겹감은 분홍색 은사양단으로 하고 안감은 나일론 노방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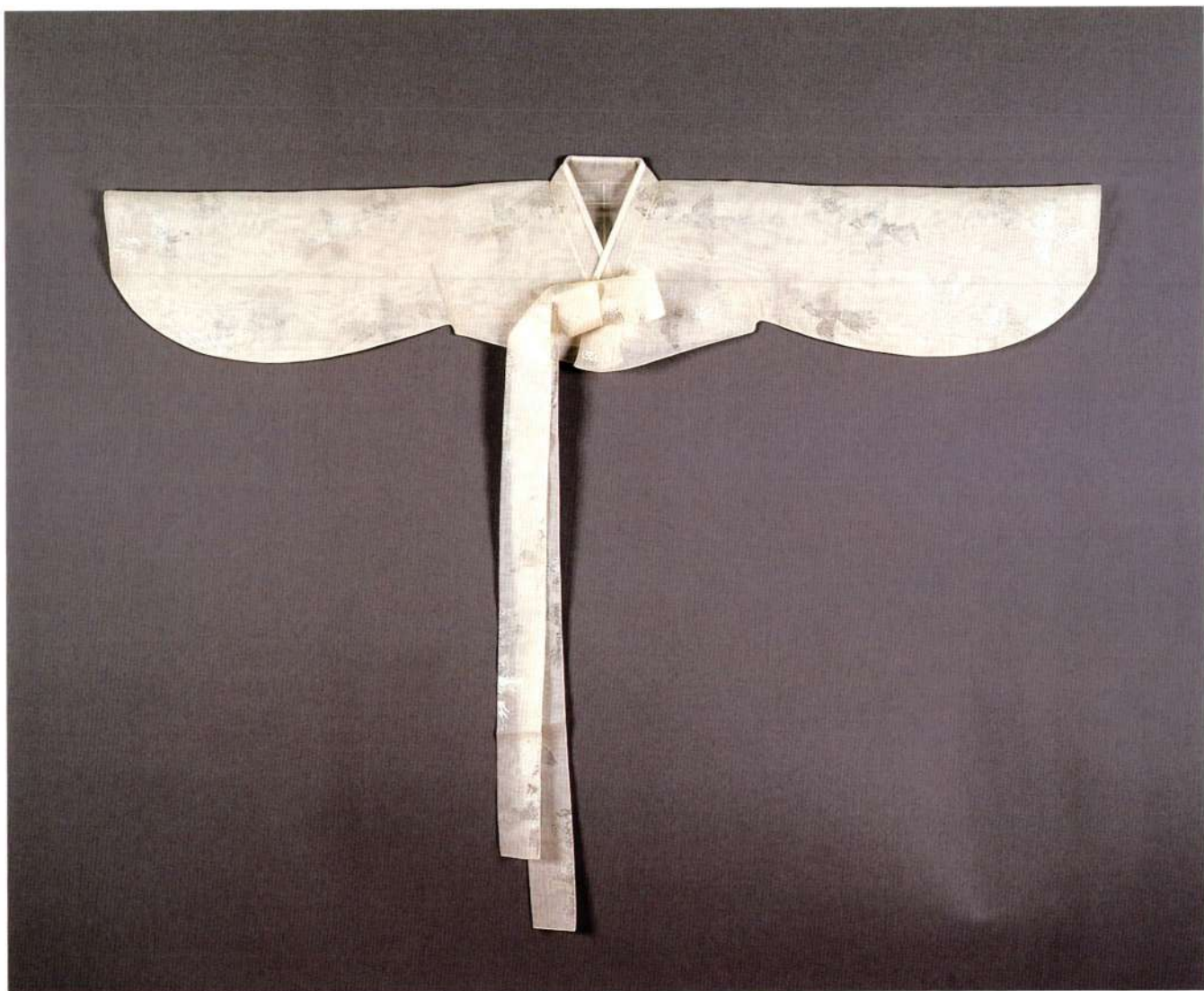
전두환대통령 이순자여사

1980 - 1988

이순자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한복을 바르게 입기 위하여 한국복식사를 공부하였고, 외국 영부인들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과시하였으며, 예복으로서 한복 디자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 복식사에서 1980년대는 한복업계가 발전하고 한복의 고급화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로 평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순자 여사의 한복을 잘 입기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이 일조 하였다.



1981. 3. 4 제11대 대통령 취임식.



23 저고리 赤古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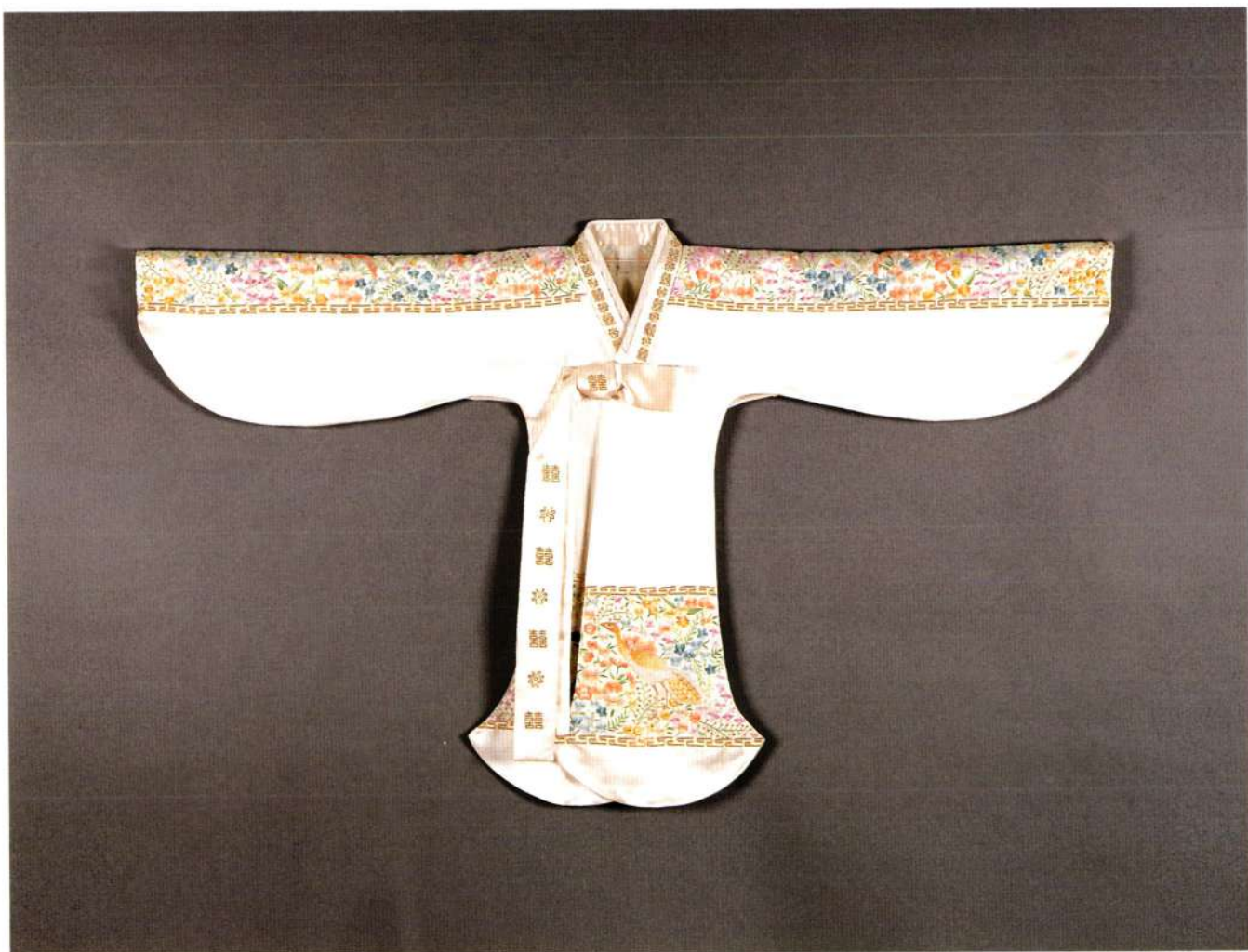
1980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22.5cm 화장 69cm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때 이순자 여사가 착용했던 저고리이다.
소색(素色) 노방주로 안팎을 만들고 운봉문(雲鳳紋)의 은박을
드문드문 찍었다.

24 치마 赤巾

1980년 Skirt for Women, Silk 길이 120cm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때 이순자 여사가 착용했던 저고리이다.
소색(素色) 노방주로 안팎을 만들고 운봉문(雲鳳紋)의 은박을
드문드문 찍었다.







25 봉황 자수

당의 자수부분 확대 사진이다.

26 당의 唐衣

1981년 Ceremonial Long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84.5cm 화장 71cm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때 이순자 여사가 착용했던 당의이다.
소색(素色) 공단으로 만들었고 어깨와 앞길 하단에는 불문(繡紋)사이에
공작과 꽃무늬를 손수로 놓았다.



1981. 3. 4 제12대 대통령 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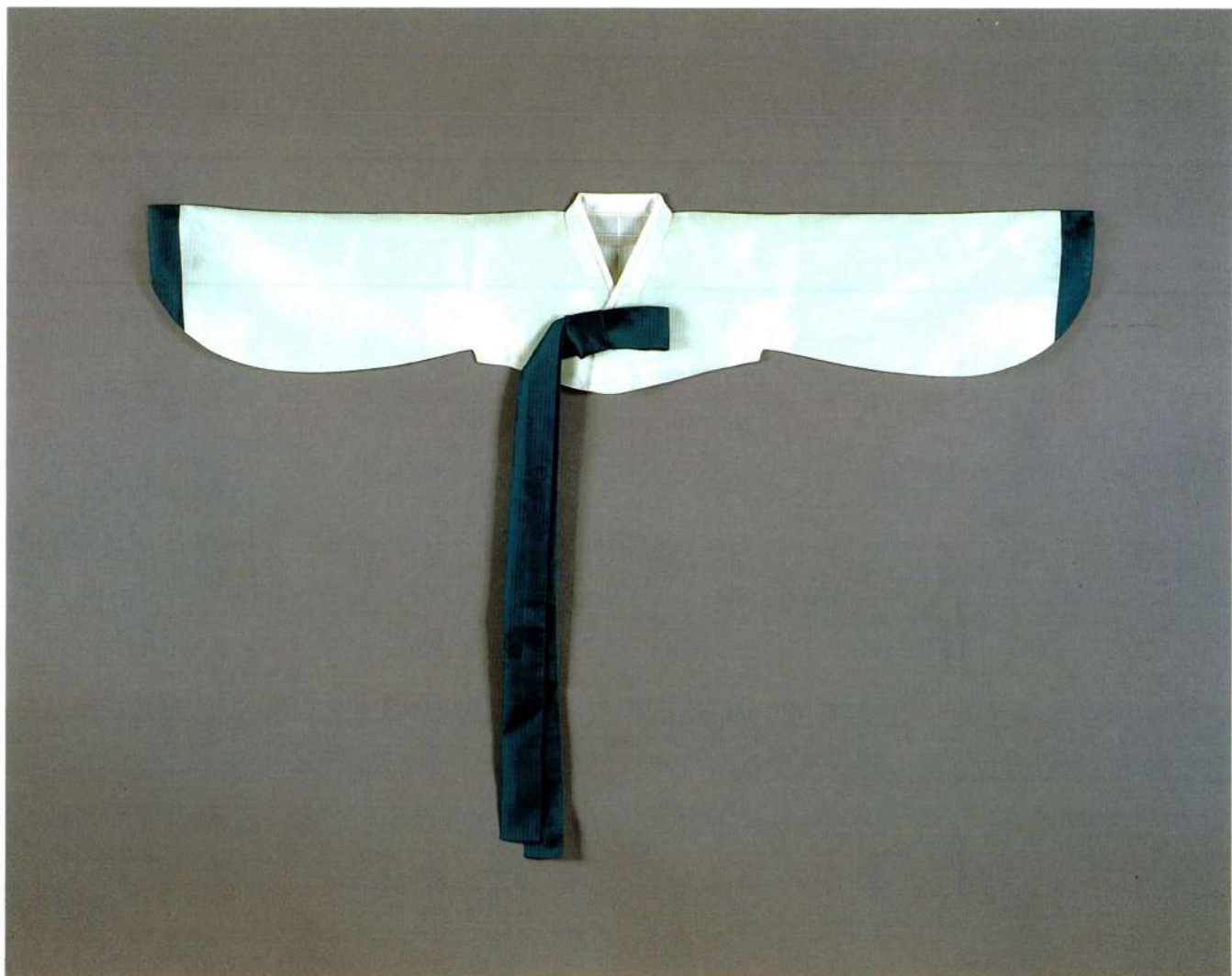
27 저고리 赤古里

1981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22.5cm 화장 69cm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때 이순자 여사가
착용했던 저고리이다.
소색(素色) 공단으로 만들었고
고름과 깃에 금사로 불문(黼紋)을 수놓았다.

28 치마 赤々

1981년 Skirt for Women, Silk 길이 117.5cm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때 이순자 여사가
착용했던 치마이다.
소색(素色) 공단으로 만들었고 치마단에는
불문(黼紋)사이에 공작과 꽃무늬를 손수로 놓았다.





29 반회장 저고리 半回裝 赤古里

1980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23.3cm 화장 69cm
이순자 여사가 일본 순방시 다도회때에 착용했던 저고리이다.
옥색(玉色) 순인으로 안팎을 만들었으며,
고름과 끝동은 치마와 같은 청색으로 하였다.

30 치마 赤々

1980년 Skirt for Women, Silk 길이 120cm
이순자 여사가 일본 순방시 다도회때에 화장 저고리와 일습으로
착용했던 치마이다.
청색 순인으로 안팎을 모두 만들었는데 겉감과 안감의 무늬를
정확히 맞춰주어 깔끔해 보이도록 하였다.



노태우대통령 김옥숙여사

1988 - 1993

김옥숙 여사는 청와대 시절 '보통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눈에 띄지 않는 차림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따라서 금박이나 자수와 같이 화려한 장식보다는 주로 자연스러운 색의 조화로 한복의 멋을 표현하였다.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중간 톤의 색상에 화려한 장식이 없어 소박해 보이나, 실제로 한복에 사용한 고급 소재와 독특한 염색, 바느질 기법 등을 한복디자이너와 직접 의논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통하여 대통령 부인으로의 세련된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1988. 2. 26 제13대 대통령 취임식 날 청와대앞.



31 두루마기 周衣

1998년 Overcoat for Women, Silk 길이 125cm 화장 74cm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때

김옥숙 여사가 착용했던 두루마기이다.

겉감은 치마저고리와 동일한 열은 주황색으로 염색한 뉴통으로 만들었고, 안감은 같은 색 장지문단을 넣었다.



32 저고리 赤古里

1988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25.5cm 화장 72.5cm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때 김옥숙 여사가 착용했던 저고리이다.
겉감은 옅은 주황색 명주로 만들고 안감은 같은 색 노방주를 넣었다.

33 치마 赤々

1988년 Skirt for Women 길이 118cm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때 김옥숙 여사가 착용했던 치마이다.
겉감은 옅은 주황색 명주로 만들고 안감은 같은 색 노방주를 넣었다.





34 신발

1988년 Shoes for Women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때

김옥숙 여사가 취임식 한복에 착용했던 신발이다.

흰색의 가죽으로 고무신 형태.



35 목도리

1998년 Scarf for Women, Silk 길이 170cm
두루마기와 함께 목에 두른 목도리로 두루마기와
동일한 뉴동으로 하고 양쪽 가장자리에는 명주실로
매듭한 술장식을 달았다.

36 핸드백과 장갑

1998년 Hand Bag and Gloves for Women
취임식 복식과 함께 사용하였던 것으로
흰색 가죽 바탕에 금사와 은사로
수 놓은 핸드백과 레이스로 장식된 장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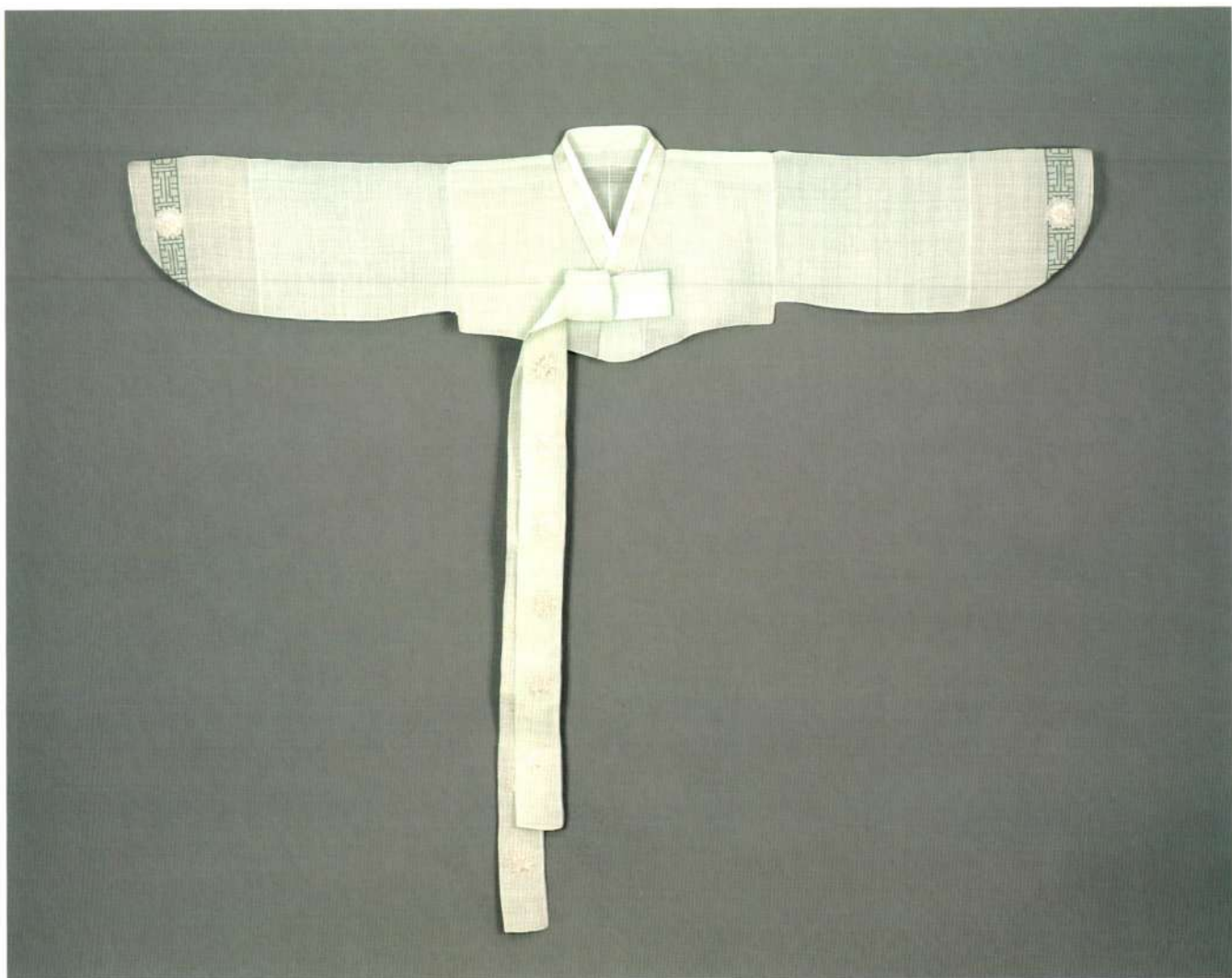
김영삼대통령 손명순여사

1993 - 1998

손명순 여사는 튀는 색상을 싫어하고 치마저고리를 동일 색으로 입는 것을 좋아하였다. 또한 동일 색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저고리의 깃과 섹션, 도련, 수구에 가는 선을 두르고 치마저고리에 화려하게 수놓아 장식한 디자인을 매우 선호하였다. 손명순 여사의 외모는 한복이 잘 어울리는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대통령 부인들에 비하여 국내외의 공식행사에 비교적 양장을 즐겨 입었다.



1993. 2. 25 제14대 대통령 취임식.



37 저고리 赤古里

1990년대 후반 Jacket for Women, Linen 길이 25.5cm 화장 69cm
 손명순 여사가 외국방문용 예복으로 만들었던 저고리이다.
 옥색의 모시 저고리인데 앞길은 겹으로 하였다.
 깃과 소매 끝, 고름에 은사와 청색의 끈사를 사용하여 징금수를 놓았으며
 깃과 고름에 얹은 회색으로 선을 대어 장식하였다.

38 치마 赤竹

1990년대 후반 Skirt for Women, Linen 길이 117cm
 손명순 여사가 외국방문용 예복으로 만들었던 치마이다.
 옥색의 모시 11폭을 이어 만든 홀치마로 치마단에 은사와 청색의
 끈사를 사용하여 징금수로 장식하였다.



김대중대통령 이희호여사

1998 - 2003

이희호 여사는 연한 옥색, 연한 보라색, 연한 미색 등의 온화한 색의 명주로 만든 전통한복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청와대에 들어간 초기에 한복을 입고 골절상을 입은 후부터는 한복의 멋에 치중하기 보다는 실용성에 목적을 두어 치마의 폭이 좁아지고, 길이도 발등 위로 올라가도록 짧게 만들었으며,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장을 착용하였다.



1998. 2. 25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39 두루마기 周衣

1998년 Overcoat for Women, Silk 길이 112.5cm 화장 72.5cm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때 이회호 여사가 착용했던 두루마기이다.
 걸감과 안감은 엷은 분홍색의 명주로 하고, 수구 끝과 고름 깃과 섹션에
 분홍색으로 가는 선을 돌려주었다.



40 저고리 赤古里

1998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24.7cm 확장 71.5cm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때 이회호 여사가
착용했던 저고리이다.
겉감은 분홍색 명주로 만들고 안감은 동일 색 노방주로 하였다.

41 치마 赤々

1998년 Skirt for Women, Silk 길이 113.5cm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때 이회호 여사가 착용했던 치마이다.
겉감은 분홍색 명주로 만들고 안감은 동일 색 노방주로 하였다.





42 장갑, 목도리와 슀

1998년 Gloves, Scarf for Women, Silk, 길이 190cm
이희호 여사가 취임식 때 착용했던 장갑과,
두루마기와 함께 착용하였던 목도리와 슀이다.

論 文

현대 한복과 영부인 복식

조 효 숙 | 경원대 의상학과 교수

1. 머리글

이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의 한복은 민족의 의식구조와 기후풍토에 알맞게 정착된 고유의상이며, 다른 어떤 나라의 민족의상 보다 실루엣, 색채, 문양, 소재 등에서 우리조상들의 뛰어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이후 산업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한복의 착용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 일상복이 양복으로 대체되었고 한복은 결혼이나 명절 등 특수예복에 그 용도가 한정되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무섭게 밀어닥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한복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더욱 더 사라져서 결혼 예복의 자리마저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 모두가 한복은 우리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인식하고, 먼저 한복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여사에게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홉 명의 영부인이 있었는데, 모두 한복을 단아하게 차려입고 취임식을 하였으며, 국내외의 중요한 행사에는 항상 한복을 아름답게 입어 국모로서의 품위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영부인의 한복은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 복식문화를 선양하고, 국내적으로는 한복 패션리더역할을 하며,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패션감각은 물론 가치관까지도 말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번 경운박물관에서는 역대 대통령 부인들의 한복을 한자리에 모아 특별전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전시회는 단순한 흥미위주의 전시가 아니며, 한국 복식사의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물론이며, 한국 정치·경제의 이면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 생각된다. 복식의 역사가 짧은 미국에서도 이미 20세기 초기부터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역대 대통령 부인의 취임식 복식을 성황리에 전시하였으며, 그 옷들은 기증되어 박물관에 잘 보관되고 있다.

경운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시를 기념하여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현대한복의 변천 과정을 문헌자료와 함께 대통령 부인 복식이라는 실물자료를 통하여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한복의 품격과 멋을 찾아내어 현대생활에 폭넓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먼저 실물자료 및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조선시대의 전통 한복이 지난 50년에 걸쳐 현대 예복으로 변천해가는 과정을 당시의 사회, 정치, 경제 상황 등 제반 시대적 배경과 연계하여 정리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복이라 할 수 있는 역대 영부인들의 한복 실물들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2. 한복의 변천

19세기 말 서양문물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이념과 가치관에 획기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전 통사회에서 점차 근·현대사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격동 속에 복식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눈에 띄는 변모를 겪었으니 우리의 전통복식인 한복이 양복과 이중구조를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도 20세기 전반기까지는 한 복이 양복과 더불어 일상복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나, 1950년 6.25의 한국전쟁 이후 급속히 밀려오는 서양문물의 영 향으로 한복은 일상복의 자리를 서양복에 빼앗기고 예복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한복이 변천되며 현대사회에 수용 되어온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물론 해방이후부터 현대 한복 50년의 역사를 3기, 혹은 4기로 구분한 선행연구 들이(이경자, 1983; 황의숙, 1995) 있으나, 한복의 유행경향은 지역, 계층, 혹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비교적 크 게 나타나므로 현대한복 50년의 기간을 다시 3-4기로 세분하는 것은 지양하고, 년대별로 특징을 서술하였다.

2.1 1950년대

2.1.1 형태의 변천

195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나라를 되찾은 기쁨으로 일반국민의 다수가 민족의상인 한복을 일상적으로 착용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 후 서양문화의 도입과 함께 1953년에 「여성계」, 1955년에 「여원」, 1957년에 주부생활의 여성잡지 가 창간되고 1956년 최초로 '노라노 패션쇼'가 열리는 등 급변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한국여성들의 양복에 대한 관 심은 날로 높아졌으며, 양복 착용은 가속화되어 1950년대 후반에는 한복과 양복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착용되는 상황 이 되었다(서울특별시, 1981). 당시 우리 사회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이처럼 양복이 확산 되는 사회 분위기가 가세하여 우리의 전통 복식인 한복의 착용 동기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입을 수 있을까 하는 미 적 추구보다는 편리함과 실용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수층에서는 전통한복을 활동에 편리한 모습으로 착용 하였고, 일부 개혁 층에서는 서양복을 모방한 개량한복 형태로 착용하기도하였다.

먼저 전통 한복의 형태는 저고리 길이가 길고 소매는 짧아졌으며, 진동은 넓어지고 서양복처럼 앞치짐을 많이 주어 활동적이었다. 깃과 쏘, 동정의 넓이는 개화기 이후 가장 넓어졌다. 반면, 치마는 옷감의 절약과 활동의 편리함을 위하 여 통이 좁고 길이는 발목이 보일 정도로 짧아져 저고리와 치마의 비율이 1:3정도로 균형미를 상실하였다. 또한 전쟁 이후 새롭게 변한 것 중에 하나로 동정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이전까지는 한지를 형겅으로 싸서 만든 부드러운 형태 이었음에 반하여 딱딱한 종이심지를 넣은 기성품 동정이 최초로 등장하였다.

개량한복의 형태는 저고리의 고름을 짧게 잘라 리본모양으로 매기도하고, 때로는 고름을 없애고 브로치로 대용하였 다. 가슴선을 살리고자 양장식의 다트를 넣기도 하고, 소매의 진동선을 없애고 양장의 프렌치슬리브처럼 재단한 저고 리도 유행하였으며, 여름용은 저고리 소매를 팔꿈치까지 자르기도 하고, 치마 위에 보래로 형태의 저고리를 걸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량한복은 1950년대 말 정부에서 의식주를 개선하고자 시행한 '신생활 운동'으로 가속화되었다("여원", 1956. 9.).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생활복' '새생활복' '표준간소복'의 실용 복장이 계속 발표되었고, 이 발표회에서 개량한복도 유행시키었다("조선일보", 1958. 11. 14.).

2.1.2 소재의 변천

한국 전쟁으로 국내 섬유 공장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1953년까지의 의복용 소재는 미국의 원조물자나 밀수품으로 충당하였다(동양나일론주식회사, 1976) 1952년에는 "전시 생활개선법 시행령"("조선일보", 1952. 8. 31.)을 공포하여 양단, 비로드, 하부다에, 오빠루, 조오젯, 나일론을 착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50년대 동안에 양단, 비로드, 나일론의 직물들을 밀수 적발한 사례가 신문기사에 빈번하게 나타났다("동아일보", 1956. 2. 22외 수십차례의 직물밀수기사가 있음). 여러 종류의 밀수직물 중에서도 한복용 옷감으로 세탁과 손질이 편리한 다후다, 나아가라, 고포나일론 등 나일론 섬유가 크게 유행하였으며, 그 외에 고급품으로 경도양단과 홍콩양단, 경도비로드도 유행하였다. 특히 나일론은 한복에도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어 투명한 나일론으로 한복을 만들어 입어서 노출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하였다. ("동아일보", 1956. 8. 23.; "조선일보" 1957. 8. 8.) 그러나 이런 수입 옷감들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도시의 상류층에서나 유행하였고 농촌에서는 아직도 국내산 무명과 모시, 베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2.2. 1960년대

2.2.1 형태의 변천

1960년대 초기까지는 5.16. 군부 쿠데타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감으로 국민들은 의생활에 관심을 보일 여력이 없었다. 1950년대 말기와 다름없이 저고리의 길이가 길고 화장이 짧으며 동정, 깃, 섹이 넓은 전통 한복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사회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정부각료의 해외순방이 잦아지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각료회의 및 국제학술회의 등이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중요한 외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의 한복착용은 필수적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한복이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한복패션의 리더(leader)로서 우아한 한복의 자태를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일반 여성들은 더욱 한복을 예복으로 즐겨 착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 중반 이후 한복은 다시 활성화되었고 이제부터는 전 시기의 실용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착용자의 키가 크게 보이기 위하여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고 품도 좁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치마는 길어졌고 치마의 폭도 직선재단에서 사선재단으로 바뀌어 전체적으로 A-line 형태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바느질 방법에서도 레이스, 춘추 비로드, 오빠루, 후로키, 등의 부드러운 천을 겹감으로 하고 겹감과 안감 사이에 망사 심지를 넣은 3겹 바느질이 유행하였다(이은진, 2001).

2.2.2 소재의 변천

1960년대 섬유산업은 혁명정부의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어 고도성장을 계속하였다. 면방직업, 견직업은 물론 인견섬유, 화학섬유업계도 기술개발을 통한 각종 의료(衣料)를 생산하고, 기계 설비를 현대화함으로써 직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화학섬유는 1960년대를 대표하는 직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주)한국나일론과 (주)한일나일론이 63년과 64년에 최초로 나일론 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화섬공업이 본격적으로 개막되었으며, 1967년 정부의 제 2차 5개년계획의 육성산업 대상이 되어 금융 및 세제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의 화섬산업”, 1993). 한국나일론은 ‘코오롱’이라는 상품명으로 상품명으로 새 나일론을 생산하였으며 69년에는 코오롱 양단과 코오롱 뉴뿔을 생산하여(“코오롱 20년사”, 1977) 한복용 옷감으로 대 유행을 시켰다.

1968년 3월에는 (주)대한합성섬유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폴리에스터를 생산하였다. 69년부터는 합성섬유 중에서도 폴리에스터가 매우 유행하여 (주)선경합성, (주)삼양사 등에서 지지미, 테트론, 구로폰, 앙고라, 깔깔이, 시폰 등의 다양한 폴리에스터 소재를 생산하였는데(“한국의 화섬산업”, 1993) 이러한 직물은 양장뿐만 아니고 한복의 치마저고리, 안감은 물론 겹감에도 선풍적인 유행을 가져왔다. 처음에는 무늬가 없는 단색이 사용되었으나 점차 화려하게 날염된 것이 유행하였으며 테트론 바닥에 자수를 놓은 자수직물도 유행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한복이 예복으로 활성화되자 한복용 직물로 특별히 생산된 교직물도 유행하였는데 경사는 나일론으로 하고 위사는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였다.

견직업도 62년 이후 농가소득의 증대와 수출확대를 위한 잠업증산 5개년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생산의 활기를 찾고 중요한 의료로 자리 잡기 시작하여 홍콩양단, 미술단, 곤사단 등을 생산하였으나 아직은 고가이므로 일반화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견섬유와 유사한 인견섬유의 기술 도입으로 1967년 흥한화학섬유에서 최초로 레이온사를 생산하였다(“한국의 화섬산업”, 1993). 당시에 한복 소재의 특징적인 것으로 금은사를 넣은 양단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100% 견직물이 아니고 견과 인견의 교직물이거나 인견직물에 많았다. 견과 인견의 교직으로 짠 도이루 양단도 당시의 대표적인 한복용 직물이었다.

면방직업은 기존의 시설에다 고급제품 생산을 위한 증설과 동시에 경영의 합리화와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품질이 좋은 옥양목과 포플린의 생산이 가능하였고 이러한 신소재가 한복에도 유행되었다.

2.3. 1970년대

2.3.1 형태의 변화

1970년대 한복의 특징은 예복화이다. 이미 1960년대 후반기부터 결혼이나 명절 등을 위한 예복으로 착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결혼·명절은 물론 사은회·일반연회·무대복 등의 파티

복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한 이유는 경제번영으로 세계 각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영부인과 외교관 및 관료 부인들이 국제 모임에서 한복을 많이 착용하게 되었고, 세계미인대회에서 한복이 최우수 민속의복 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온 국민들이 전통한복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이다(황의숙, 1995). 한복의 제작형태도 가내봉제수준에서 벗어나 전문적 한복 맞춤집이 시작되었고 백화점에 한복코너가 등장하였다(“동아일보”, 1977, 1978). 예복화된 한복은 점차 실용성이 감소된 반면 장식성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갔다. 형태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1960년대 말기에 나타난 실루엣의 변화이다. 저고리의 길이는 점점 짧아져 옆길이가 거의 없는 정도인데 반하여 깃의 길이는 길어 여밈이 깊어지고 고름의 길이가 매우 길어졌다. 치마도 길어졌는데 이러한 형태는 활동에는 불리하나 한국여성의 체형을 보완해 주고 키가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여성지나 매스컴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1970년대에는 대부분이 착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선 재단법이 개발되어 치마 폭수가 증가하고 A-line의 실루엣이 되었으며 페티코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속옷착용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직물, 색채, 문양 등도 예전에 비해 장식하는 방법과 부위도 다양해졌다. 저고리의 장식은 부분적인 장식에서 양 어깨로, 그리고 치마의 장식은 치마단 둘레, 도련선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장식방법도 대담하고 화려한 기계자수나 금박, 날염, 보석장식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2.3.2. 소재의 변천

한복업계의 호황과 더불어 자카드 직물의 수출도 활황을 이루어 대기업들이 한복지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1969년(주) 한국나이롱에서 코오롱 양단을 생산한 것을 기점으로 1970년대에는 (주)동양나일론과 (주)선경화섬 등에서 칠보단, 공주단, 대왕단, 선화단, 왕비단, 금실단 등의 상품명으로 화섬양단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직물들은 대부분 경사는 나일론으로 하고 위사는 폴리에스테르로 짠 것이다. 60년대의 한복용 직물에 화학섬유로 만든 깔깔이, 쉬폰 등의 양장 소재가 유행하였던 것이 특징이라면, 70년대는 화학섬유로 만든 양단, 공단, 유똥 등의 전통소재가 유행하였고(“동아일보”, 1973. 2. 13.). 그 표면에 기계자수, 금박, 날염 등으로 장식하여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한복이 예복화 됨으로 화려함이 요구되었고, 둘째 경제발전과 기술향상으로 새로운 장식 기법이 보급되었으며, 셋째 한복 착용이 증가하면서 가내봉제수준에서 전문적 맞춤한복으로 발전되면서 전문 제작자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견직업도 설비와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일반 한복용으로 판매되기 보다는 수출 선도사업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다(김상대, 1994).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수출로 인한 경제가 좋아지면서 국내 한복시장에서도 견직물의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동아일보”, 1977. 10. 25.). 반면에 무명이나 모시, 순명주와 같은 전통 천연 소재는 생산량이 감소하였는데 도시화 산업화로 농촌인구가 감소하여 수직기로 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누에고치나 면화와 같은 천연 원자재 값이 급상승함에 따라 채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점차 쇠퇴하였다.

2.4. 1980년대

2.4.1 형태의 변화

1980년대 역시 한복의 예복화 고급화 경향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전 시대에 지나친 장식성으로 흘렀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차츰 우리 고유의 멋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창조된 점이었다. 더구나 1970년대부터 의상학계에서 복식사 연구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각 시대별 복식형태가 밝혀졌으며, 이러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고증한복이 강화되었고 궁중복식이 응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복디자인은 화려한 장식이 사라지고 점차 품위 있는 분위기를 내도록 연구되었다. 저고리의 길어도 조금씩 길어지고 저고리의 색을 치마와 달리하면서 깃과 끝동 고름을 다른 색으로 한 회장저고리가 유행하였다. 치마의 폭도 줄어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갖는 실루엣으로 변화되었다. 두루마기의 착용이 부활하여 긴두루마기는 물론 반두루마기도 많이 입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 12월 1일부터 실시된 칼라 텔레비전의 방영은 패션계에 색채감각의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생활전반에 색상이 중요시 되면서 양복과 한복에 다양한 색채가 사용되었다. 특히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전통 한복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어 한복을 위한 전문 맞춤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복디자이너도 등장하였다.

2.4.2 소재의 변천

1980년대에는 경제적 안정으로 전 국민의 의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복식 전 분야의 고급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 시대에 유행하였던 화학섬유는 사라지고 천연섬유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특히 한복소재로 견직물이 유행하였다. 견직물 중에는 '사철깨끼'라고 부르는 노방주, 생명주가 선풍적으로 유행하였는데 그것 역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견물의 난방시설이 좋아졌으며, 특히 난방이 잘되는 아파트 생활로 인하여 얇은 직물들이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행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한복 1벌을 맞추면 사계절을 모두 입을 수 있었으니, 한복 수요가 줄고 자연히 견직물 생산업체는 불황의 시작이 되었고 '사철깨끼' 이외에 신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니 디자인 개발 후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었다. '사철깨끼'가 유행하면서 직물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색상을 다양화 하고 그림이나 자수 등 2차 가공이 많아져서 궁중 당의를 모방하여 수보를 저고리 양어깨에 붙이거나, 금은박을 찍거나 혹은 치마폭에 산수화를 직접 그림을 그리는 회염이 많이 사용되었다.

2.5. 1990년대

2.5.1. 형태의 변천

1990년대에는 조선시대의 출토복식을 통하여 조선 중기의 복식이 새롭게 연구되는 등 복식사 연구가 강화됨에 따라 한복디자인은 더욱 복고풍을 띠며 고증에 의해 디자인된 한복이 강세를 이룬다. 바느질 기법도 옛것이 재현되어 누비, 잣물림, 싯코짜기, 조각잇기, 파이핀 넣기 등이 유행되었다. 이와 함께 도시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연으로 복

귀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천연염색에 의한 자연색 표현을 선호하여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고급 디자이너숍을 중심으로 천연염료에 의한 전통색 재현의 바람이 일기도 하였다. 또한 삶의 질이 향상되어 연령, 장소, 용도에 적합하게 복식을 착용하는 경향이 생겨 한복의 종류가 다양화 되었다. 활동을 필요로 할 때는 생활한복이라는 이름의 개량한복이 활성화 되었으며 예복으로 격식을 차려 입을 때는 치마저고리 외에 두루마기나 당의까지도 갖추어 입는 경우가 많아졌다.

저고리형태는 길이가 길어지고 깃과 쏙, 동정이 넓어졌으며 치마의 부풀림이나 길이에 과장되지 않는 등 화려함보다는 단아한 멋을 되찾으려는 흐름이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고가품에서는 물론 저가품의 기성 한복에서도 형광 빛 이 도는 강한 색상보다는 전통적인 색채를 선택하는 등 색상의 안목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하겠다. 한복 제작방식은 주단점, 맞춤점이 여전히 중심이 되었지만 디자이너브랜드의 업체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5.2 소재의 변천

80년대 말부터 유행된 '사철끼끼' 라고 부르는 4계절용 얇은 실크는 복고풍과 자연주의의 영향으로 90년대 중반부터는 점차 퇴조하기 시작하였고, 점차 제철에 어울리는 천연소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여름에는 모시와 안동포를, 봄가을에는 숙고사와 자미사를, 겨울에는 명주나 단종류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96년경부터는 복고풍을 표현하기 위하여 모본단 한복이 다시 유행되었고, 97년부터는 자연주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옥사를 이용하여 위사방향에 슬립 효과를 낸 옥사 생명주나 산똥 실크가 유행하였으며, 후들거림을 막기 위하여 생사와 숙사를 1:1혹은 3:2의 비율로 제직하여 얇고 뽀뽀한 느낌을 준 것이 많았다. 또한 한국복식사를 연구하는 학계의 영향으로 98년부터는 조선시대의 직물 문양들을 재현한 연화문단과 운문단, 금사로 무늬를 제직한 금선단 등이 생산되어 한복 직물업계에 새로운 복고풍의 경향으로 떠올랐다.

직물 장식법은 80년대에 이어 화려하고 과장된 것 보다는 은은하고 고급화된 것들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기계자수나 금은박, 그림 등의 방법보다는 직조에 의해 예스러움을 강조하였으며 문양의 크기도 점차 작아지고 직물 전체에 퍼져있는 것 보다는 단일 모티브가 은은하게 드문드문 산재한 느낌이 많았다. 색상도 고가품에서는 천연염색을 선호하였고 가격대 때문에 천연염색을 못할 경우에도 천연염색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강한 원색을 피하고 파스텔 계통의 색채와 겨자색, 자주색, 회색 등 중간색 계통의 배색이 즐겨 사용되었다.

3. 영부인의 한복

한복패션도 서양복 분야와 같이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유행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역대 대통령 부인들의 한복 입는 성향은 한복 유행에 있어서 단연 중요한 변화 요인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영부인의 의상은 국내적으로는 한복의 패션리더 역할을 하고, 국제적으로는 그 나라의 복식문화 수준을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역

활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한복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부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3.1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의 복식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부터 1960년까지 재임한 초대 대통령으로 비교적 한복을 즐겨 입었다. 1948년, 1952년, 1956년 모두 3차례의 취임식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1948년 취임식에는 <그림1>과 같이 한복을 입었고, 그 후 2차례의 취임식에는 양복을 입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3차례의 취임식에 모두 한복을 입었으며, <그림2>는 1956년의 제3대 대통령 취임식 후의 모습으로 흰색의 목수 치마저고리에 브로치를 달았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비록 외국인의 국모였지만 국민들과의 친근감을 위하여 공식 석상 이외의 일반 외출 시에도 비교적 한복을 즐겨 입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미국에서 윤치영의 아내 이은혜를 통해 한복을 처음 갖게 되었으며, 그 후 대통령이 한복 입은 모습을 좋아하여 자주 입게 되었다고 한다(고승현, 1996). 프란체스카 여사는 연한 옥색이나 보라색의 한복을 즐겨 입었으나 워낙 검소하여 인조견이나 목면과 같이 당시에 일반 서민들이 입던 검소한 옷감을 많이 사용하였고, 자수나 화려한 장식이 없이 평범하고 소박하게 입었다. 또한 착용시의 미적 아름다움 보다는 활동에 편리한 실용성에 중점을 두어 개량형의 한복을 즐겨 입었다.

앞 단원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1950년대는 개량한복이 매우 유행하였는데 이것은 6. 25 한국전쟁 후 미국문화가



<그림 1> 1948.7.24 초대 대통령 취임식.
사진으로 보는 한국백년

유입되어 사회 전체에 만연한 서구 지향적 분위기 이외에도 개량한복을 즐겨 입었던 외국인 영부인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옷고름을 없애고 브로치를 달았으며 고무신과 버선 대신에 양말과 구두를 신었다. 치마의 폭과 길이도 짧게 하였는데 착용에 편리하자는 목적도 있었지만 옷감을 절약하고자하는 목적도 있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절약 정신이 대단하여 한복을 여러 번 뜯어 다시 바느질해서 입고, 너무 낡아 도저히 옷을 만들기 어려우면 헌 옷을 뜯어 간단한 소품을 만들어 외교관 부인들이나 지인들에게 주는 선물로 활용하였다.

<도판 1>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국가 수립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자리에 입었던 두루마기로 고름대신 단추로 여며 입게 만든 여름용 두루마기이다. 이 대통령은 그와 같은 단추로 여밈을 한 두루마기를 즐겨 입었는데 이런 형태의 두루마기는 일찍이 1910년대부터 개화 인사들이 입기 시작하여 '개화두루마기'라고 하였으며 당시에 일반인에게도 매우 유행되었던 형태이다. 두루마기의 길감은 곱게 다듬은 모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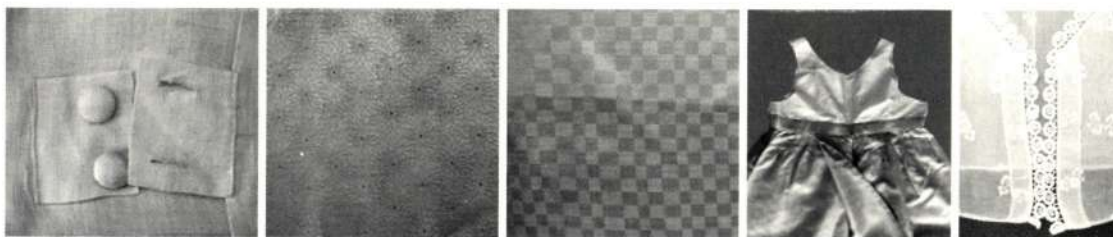
며 안감은 5족 향라로 만들었다. <도판 2, 3>은 두루마기와 함께 입었던 바지저고리로 저고리 겹감을 소재 7족 향라로 만들고 안감은 다듬은 명주로 하였으며 바지는 안팎 모두 소재 생초로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 한복의 직물의 사용은 이처럼 개화기부터 일제시대까지 널리 유행되었던 전통적 소재를 선호하였으나 복식의 형태는 개량형을 선호하여 <그림 3>과 같이 고름대신 여밈 바대를 만들어 단추를 달아주어 입고 벗기에 편리하도록 실용성을 가미하였다. 두루마기의 깃나비는 8cm, 동정은 4.2cm이며, 동정은 창호지를 십자로 넣고 명주로 싸서 부드럽게 만들었다.

<도판 5, 6>은 프란체스카 여사가 1950년대 말 경무대시절에 입으셨던 치마저고리로 1960년 이화장으로 하야할 때에도 입으셨다고 한다. 치마저고리 모두 국화무늬가 있는 옥색 은사양단으로 만들었으며 저고리의 안감은 은반건이다(<그림 4, 5>). 겹감으로 사용한 은사양단은 경사는 실크이나 위사는 인견사인 교직(絞織)양단이며, 안감의 은반건은 경위사 모두 인조견이다. 앞단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60년을 전후 한 한복소재의 특징은 금사 혹은 은사를 넣은 양단이 유행하였는데 대부분 100% 견직물이 아니고 견과 인견의 교직물이 많았다. 안감은 대부분 인견을 썼는데 프란체스카 여사의 한복소재는 그 시대의 일반인들의 한복 분위기를 대변하는 듯하였다.

또한 형태에 있어서도 그 시대에 개량한복이 유행하였던 바와 같이, 프란체스카 여사의 한복도 치마에 트임이 없는 개량형 조끼허리를 연결하였으며, 조끼허리에는 작은 다트가 4개 들어있어 서양의복의 입체재단을 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끼허리에 치마를 연결하는 방법도 특이하여 치맛자락이 마치 왼쪽 여밈으로 입은 것같이 보이도록 자락을 왼편으로 감아 <그림 6>과 같이 개량형 조끼허리에 연결하였는데, 실제에는 트임이 없어 머리부터 뒤집어써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치마의 폭도 75cm 나비의 옷감을 세 폭 연결한 좁은 폭으로 모양 보다는 실용성을 중요시하였다. 저고리는 등길이가 33cm로 길게 입었고 깃나비도 5.4cm로 비교적 넓었다. 고름의 폭은 6cm이며 길이는 각각 92cm, 72cm로



<그림 2> 1956. 8. 15
3대 대통령 취임식. www.president.go.kr



<그림 3> 두루마기의 단추여밈. <그림 4> 옥색은사양단(겹감). <그림 5> 은반건(안감). <그림 6> 치마형태(뒤). <그림 7> 흰색 목수 저고리(앞).

아직 길어지지 않았다.

〈그림 7〉도 재미있는 유물인데 마치 서양의 보레로와 같은 형태의 마고자형 저고리이다. 바탕은 평직의 면직물이며 작은 꽃무늬 수가 산재되었는데 '목수(木繡)'라 하여 역시 1960년대에 매우 유행하였던 옷감이다 여밈이 없는 대금형으로 목둘레와 앞 중심에는 레이스가 장식되었다. 등길이가 25cm로 앞의 저고리에 비하여 짧은 것으로 미루어 하여 후 이화장에 게실 때 입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2 윤보선대통령의 부인 공덕귀 여사의 한복

윤보선 대통령은 1960년부터 1962년까지 제 4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였다. 당시 혼란한 정국을 말해주듯 1960년 8월 13일 취임식에는 영부인과 가족의 좌석이 마련되지 않아 2층 방청석에 자리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조선일보”, 1960). 〈그림 8〉는 취임식 당일 기념사진인데 대통령은 연미복 차림을 하였고, 공덕귀 여사는 아흔 아홉 칸 한옥의 대저택에 살아온 한국양반가 여인답게 남치마에 옥색 저고리의 전통 한복을 짧게 차려입었다. 〈그림 9〉는 취임식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외출하는 모습이다. 당시는 의례용임에도 고무신이 보일 정도로 치마길이를 짧게 입었다.

공덕귀 여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신교육을 받은 여성이었지만, 당시의 혼란한 시대적 배경 때문에 영부인 시절에는 별로 외부와의 접촉 없이 청와대 안에서 조용히 살았으며 영부인 기간동안 그의 한복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평범한 차림을 하였다. 따라서 한복 패션의 리더 역할은 하지 않았다.

공덕귀 여사의 한복은 치마저고리 3벌과 두루마기 1벌이 조사되었다. 치마저고리 3벌중 황금색 공단에 무궁화 수가 놓인 예복 1벌, 미색 숙고사 회장저고리와 치마 1벌, 얇은 목아사에 바탕에 수놓은 목수 치마저고리 1벌이 있다. 이들의 형태는 50년대 말기의 전통형 저고리와 유사하였는데, 단지 저고리의 길이는 이미 짧아지는 추세에 있었으므로 3벌 모두 저고리 뒷길이가 29cm 전후로, 프란체스카 여사의 저고리에 비하여 약간 짧아졌고, 앞 처짐을 많이 주어 앞 도련선이 많은 곡선을 이루었으며 배래둥글게 되었다. 전에 비하여 것의 길이가 길어졌고 저고리 여



〈그림 8〉 1960.8.30 취임식날 기념 가족사진.



기념촬영 www.president.go.kr

〈그림 9〉 1960.8.30

취임식날 저녁 외출, 조선일보

밈이 비교적 깊이 파였으며 고름의 길이도 길어졌다.

〈도판 10, 11〉는 미색 숙고사 회장저고리와 치마인데 동일 색으로 상하의를 마련하고 깃, 고름, 끝둥에만 가지색의 회장을 대었다. 사용된 직물은 평직 바탕에 무늬의 외곽선만 익조직으로 짠, 본건 숙고사인데 안감은 나일론 은조사를 넣어 당시 합성 섬유가 널리 사용되었던 경향을 보여준다. 치마폭은 110cm폭 2폭을 연결하였으며, 목아사로 만든 조끼허리형태의 치마허리를 달았는데 겉쪽 하단에는 겉감과 같은 천을 덧대주어 저고리 밑으로 흰색 허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였다.

〈도판 12, 13〉의 황금색 공단 수 저고리와 치마는 의식용으로 입었는데, 5매 수자직으로 짠 공단 바탕에 무궁화 자수(기계수)가 드문드문 놓였다(그림 10). 비록 의례복이지만 치마폭은 아직 좁아서 73cm 너비의 직물을 3폭 연결하여 만들었으며, 옥양목으로 만든 조끼허리 형태의 치마허리를 달았다. 저고리 안감은 당시에 안감용으로 많이 썼던 인조견 호박단으로 하였으며 치마에는 안감을 넣지 않고 홀로 하였다(그림 11).

〈도판 14〉는 여름용 수치마 저고리로 저고리의 바탕은 얇은 목아사에 파스텔 톤의 고운 색으로 꽃수를 놓았다. 고름 대신 브로치로 여밈을 처리하였다. 치마 역시 쪽빛 목아사에 더 짙은 색으로 수를 놓았는데 안감 없이 홀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직물들을 '목수'라고 하여 1960년대를 전후하여 여름용 한복감으로 유행하였다.

〈도판 9〉의 두루마기는 겉감이 슬립사로 제직된 수직실크로 만들었으며 안감은 밝은 분홍색 폴리에스테르와 인조견의 교직으로 만든 화섬 호박단이다. 화섬양단은 견직물에 비해 두껍고 무겁기 때문에 두루마기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깃나비는 5.6cm로 비교적 넓고, 고름의 폭도 7.5cm로 넓고 길었다. 양옆에 주머니가 있고 단끝은 바이어로 싸주었으며 안감과 만나는 곳은 분홍색 실로 새발뜨기로 정리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궁덕귀 여사는 당시 개량한복이 유행하였던 사회 분위기와는 달리 전통형의 한복을 그대로 착용하였고, 사용한 옷감은 견직물 이외에 1960년대 초기에 유행하였던 목아사, 인조견, 나일론 등의 다양한 직물류가 포함되었다.

3.3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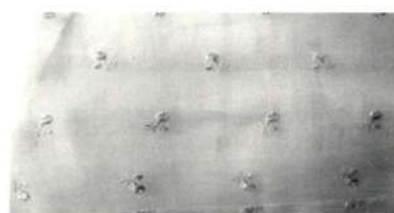
육영수 여사는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제 3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1974년 사망하실 때 까지 12년간 영부인으로 재임 하였다. 그 사이 5-8대 대통령 취임식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공식행사는 물론 사적인 생활에서도 한복



〈그림 10〉황색 공단에 수놓은 무궁화무늬.



〈그림 11〉인조호박단 (저고리 안감).



〈그림 12〉목아사에 작은 꽃무늬 수놓은 목수.



〈그림 13〉 1967. 7. 2
제6대 대통령 취임식,
조선일보

을 즐겨 입었으며 역대 영부인 중에 가장 한복을 우아하게 입어서 훌륭한 한복패션의 리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육여사의 재임 기간 중에는 웬만한 모임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회 지도층여성들도 모두 한복을 입었으며, 따라서 한복이 예복으로 각광 받았으며 한복용 섬유산업이 매우 발전하였다.

육영수 여사는 67년 취임식에 초록색 한복을 입고〈그림 13〉, 저녁 만찬에는 흰색 짙은 갈색으로 만든 한복을 입었으며(“동아일보”, 1967년 7월 2일) 71년, 72년 취임식에는 흰색 한복을 입었다〈그림 14, 15〉. 그 외의 공식행사 예복으로는 황금색, 주황색, 미색을 즐겨 입으셨는데 특히 외국 방문 시에는 무궁화나 용, 봉황을 수놓아 장식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다

〈그림 16〉, 대부분 만찬에는 주로 흰색의 공단이나 짙은 갈색이라 부르는 얇은 합성섬유로 만든 한복을 즐겨 입었고〈그림 17〉, 평상시용으로는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를 한복을 입고〈그림 18〉 특히 물방울무늬의 한복을 좋아하였다〈그림 19〉. 위낙 흰색을 좋아하여 흰 치마에 짙은 색 저고리 혹은 짙은 색 치마에 흰 저고리와 같이 치마나 저고리 중에 하나라도 흰색을 입었다〈그림 20〉.

육영수 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 한복을 기품 있고 맵시 있게 입어서 국제적으로는 세계무대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역할을 했으며, 국내적으로는 육여사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육여사는 한복 맞춤집에서 맞추지 않고, 모든 한복을 이수진이라는 할머니가 만든 것을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개성이 돋보였고 자연스러우면서 고전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다.

1960년대는 이미 한복이 예복화되는 시기로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고 치마가 길어졌다. 재임 초기에는 고무신이 보일 정도로 치마를 짧게 입은 모습이 눈에 띄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치마가 길어지고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페티코트로 치마의 부풀림을 주지 않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하였다. 저고리도 초기에는 소매가 짧고 길이도 비교적 길었으나 10여년이 지난 후 돌아가실 무



〈그림 14〉 1971. 7. 2 제7대 대통령 취임식, 조선일보



〈그림 15〉 1972. 12. 28 제8대 대통령 취임식, 조선일보

렵에는 소매는 길어지고 등길이는 27cm 전후로 짧아져서 유행에 따랐다. 재임 기간이 12년이나 되고 한달에 10여벌 이상의 한복을 만들 정도로 한복을 워낙 많이 입어서 다양한 종류의 옷감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항상 국산 옷감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4 최규하 대통령 부인 홍기(洪基) 여사 복식

최규하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 1979년 12월 6일부터 1980년 8월 6일까지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고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었으므로 홍기여사의 특징적인 옷차림이 화제에 오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 전통적 부덕을 지닌 조용한 성격을 말해주듯 언제나 한복을 즐겨 입었고 검소하고 소박한 차림을 좋아했다. 1979년 12월 제 10대 대통령 취임식 당일엔 <그림 21>과 같이 흰색 명주바탕에 초록색의 화문이 드문드문 그려진 치마저고리를 입었으며, 그 외의 공식행사에는 자수 장식된 미색공단 치마저고리를 입고, 저녁 만찬에는 금은사를 넣어 짙어두운 분홍색 은사양단 한복을 입어 연회복을 대신하였다.

<그림 21>취임식 사진. 널리1970년대는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고, 한복이 예복으로 정착된 사회분



<그림 16> 외국 방문시 용, 봉, 무궁화 무늬를 수놓음.



<그림 17> 저녁 만찬시 흰색 한복을 즐겨 입음.



<그림 19> 평상시 물방울 무늬 한복을 즐겨 입음.



<그림 18> 평상시 깔깔이 한복착용.



<그림 20> 흰 치마에 짙은색 저고리의 한복착용.

위기에 따라 한복양식이 고급화·패션화 되었던 기간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흥기여사의 한복은 매우 소박하고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복바느질 방법에서도 나일론 안감에 망사 심을 넣어 뽀뽀하게 만든 1960년대의 방법을 고수하였고, 1970년대부터 치마폭이 넓어지면서 종래의 직사각형 재단에서 치마의 윗부분을 잘라낸 A라인 재단을 하여 치마아래의 부풀림을 강조한 디자인이 유행하였으나, 흥기여사의 치마는 연회용조차도 아직 직선 재단한 210cm의 좁은 폭이었다. 이처럼 흥기여사는 취임 후 자신을 '살림이 취미인 구식여자'라고 소개한 바와 같이 한복도 옛스러움을 고수하였고, 사용한 옷감도 1980년대 전후부터는 상류층에서는 안팎을 모두 본견으로 많이 하였으나 나일론 안감을 넣었으며, 색상도 눈에 띄지 않는 검소하고 수수한 색을 선호하는 등 소박하고 서민적인 특징을 보였다.

이번 전시에는 옥색 유평, 분홍 은사양단, 황금색 자수공단으로 만든 3벌의 한복이 기증되었다. 공통적인 형태 특징은 뒷길이가 27-28cm로 약간 더 짧아졌으며 깃과 고름의 길이가 더욱 길어졌다. 저고리 3벌은 모두 3겹 바느질하였으며 치마는 좁은 폭으로 직선 재단하였고 옥양목이나 테트론의 치마허리를 달았다.

〈도판 19, 20〉는 모란꽃이 자수된 미색 공단치마저고리인데 공식행사의 예복용으로 주로 입었다. 공덕귀 여사의 자수 한복에는 무궁화 무늬가 전체에 산재되었던 것에 비하여 모란꽃이 깃, 쏙, 고름과 치마의 앞 중심에만 자수되었다. 과거 영부인들이 즐겨 입었던 무궁화 자수가 아닌 모란수를 장식하였는데 이 옷은 영부인을 위하여 특별히 수놓은 옷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성품 옷감이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도판 21, 22〉는 분홍색 은사양단 한복으로 저녁 만찬에 주로 입었는데 1960년대부터 유행하였던 뽀뽀이라고 부르는 옷감의 일종이었다. 역시 깃, 쏙, 소매 끝, 치마밑단 부분에만 〈그림 22〉와 같이 은사로 은은하게 꽃무늬를 제작한 옷감이다. 저고리 안감으로는 연보라색 나일론 노방주를 넣고, 안감과 겉감 사이에는 망사 심을 넣어 세 겹 바느질을 하였다. 치마는 무늬를 활용하기 위하여 식서방향을 밑단으로 보낸 가로직으로 재단하여 폭의 이음새가 없이 한 폭으로 만들었으며 치마허리는 테트론을 어깨끈 없이 일자로 만들어 붙였다.

〈도판 17, 18〉은 옥색 뉴퐁 저고리로 일반외출에 입었던 것이다. 저고리는 나일론 노방주 안을 대고 망사 심을 넣어 3겹 바느질하였으며, 치마는 71cm 너비 옷감 3폭을 직선으로 이었다. 옷감은 뉴퐁 바닥에 〈그림 23〉과 같이 난초를 드문드문 그려 넣었는데 1970년대에 '날염실크'라 하여 유행하였던 직물이다.

3.5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9월 1일부터 1988년 2월 25일까지 7년 5개월간 재임하였으며 1980년에 제 11대 대통령과 1981년 제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순자 여사는 1980년 취임식에 운봉문



〈그림 21〉 1972. 12. 28, 제10대 대통령 취임식, 조선일보

(雲鳳紋) 은박을 찍어 장식한 소색의 노방주 치마저고리를 입었으며(그림 24), 개헌 후 1981년 취임식에는 소색 공단 바탕에 공작과 오색 영롱한 꽃들을 수놓은 공단 당의와 치마저고리를 입고 노리개를 가슴에 드리위에 품격 있는 예복으로서의 한복의 멋을 보였다(그림 25). 비교적 밝은 색을 선호하였던 이순자 여사는 국내외의 많은 행사에 한복을 아름답게 입음으로 우리 복식의 멋을 외국에 알리고, 국내에는 한복 업계의 발전 및 디자인의 다양화·고급화에 이바지하였다.

사실 이순자 여사의 한복에 대해 너무 화려하고 사치하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그것은 제 5공화국의 부정적인 정치 이미지가 영부인의 한복으로 전가된 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다른 하나는 1980년 12월 1일부터 칼라 텔레비전이 방영되기 시작하여 이전의 흑백 텔레비전에 비하여 한복의 화려한 색이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되어 화제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대통령 부인의 의복은 외교적으로 그 나라의 복식문화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퍼스트 레이디였던 채클린도 우아하고 귀족적인 옷차림으로 유명했고,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부인도 프랑스의 유명한 디자이너의 옷을 입어 패션 디자인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모로서 품위 있고 아름답게 의복을 입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결코 검소한 의복만을 입는 것이 중요한 미덕은 아니



〈그림 24〉 1981. 3. 4
제 11대 대통령 취임식, 조선일보



〈그림 25〉 1981. 3. 4
제 12대 대통령 취임식, 조선일보



〈그림 22〉 은사단에 직조한 꽃무늬.



〈그림 23〉 뉴뿔에 나뉘된 난초무늬.

다. 이순자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한복을 올바르게 입기 위하여 한국복식사를 공부하였고, 외국 영부인의 사례들을 연구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한복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과시하였으며, 예복으로서 한복 디자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 복식사에서 1980년대는 한복업계가 발전하고 한복의 고급화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로 평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여사의 한복을 잘 입기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남치마에 옥색 반희장저고리, 은박을 장식한 소색 노방주 치마저고리, 자수 장식된 소색 공단 치마저고리와 당의 등

3벌의 한복 일습이 기증되었다. 공통적인 형태 특징은 뒷길이가 22-23cm로 매우 짧아졌으며, 깃 너비가 좁아지고 고름의 길이가 매우 길어졌다. 치마는 폭이 넓어지고 윗부분을 잘라 사선으로 재단하여 A라인 실루엣을 나타냈다.

〈도판 23, 24〉는 소재 노방주로 만든 치마저고리로 1980년 취입식에 입었던 것이다. 〈그림 26〉와 같은 운봉문 은박을 드문드문 찍어 단조로움을 없애고 예복으로서의 화려함을 보완하였다. 안팎 모두 본견 노방주를 사용하여 깨끗이 바느질 하였다. 한국의 전통 복식에서 금은박을 찍어 장식하는 것은 신라시대부터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영부인의 예복에서 처음으로 은박을 찍어 우리의 옛 한복디자인을 현대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그 후 한복업계에는 이처럼 금은박을 드문드문 찍는 것이 한동안 유행하였다.

〈도판 26, 27, 28〉은 미색 공단 당의와 치마저고리 일습으로 1981년 취입식에 입었던 것이다. 저고리의 깃과 고름에는 금사로 물문을 수놓았고 당의와 치마에는 〈그림 27〉과 같이 오색실로 공작 화문을 손수로 놓아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당의는 조선전기부터 입기 시작하여 조선말기에는 궁중과 사대부 부인들이 저고리 위에 입은 소례복이다. 영부인으로서의 유일하게 당의를 입어 유난스럽다는 비난도 있었으나, 취입식이나 외국순방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경우에 당의를 착용한 것은 조선시대에 예복으로서의 당의를 현대 한복디자인에 적용한 사례로서, 역사적 고증의 차원에서는 물론 디자인 활용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사례였다. 그 후 한복업계에서는 혼례복이나 기타 의례복에 금박 당의를 입는 것이 유행되기도 하였다.

〈도판 29, 30〉의 반회장 치마저고리는 일본 순방기간 중에 다도회에 참석했을 때 입었던 것으로 청색 순인으로 만든 치마에 옥색 순인 반회장저고리를 맞추었다. 남치마에 옥색저고리는 조선말기 사대부 부인의 예복으로 입었던 전통차림으로 취입식의 예복과는 달리 단아한 한복의 멋을 표현하여 다도회에 적합한 의복이라고 생각된다. 저고리는 겹감을 2겹으로 하고 안감은 본견노방주를 넣어 3겹 바느질하였으며, 이때 길감은 작은 꽃무늬 부분을 겹치게 하여 무늬가 도드라지고 깔끔한 느낌을 주었다. 치마는 안감대신에 겹감을 두 겹으로 하였으며 역식 무늬 부분은 겹치게 하여 무늬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치마는 45cm나비의 직물을 7폭을 연결하였으며 위쪽은 7cm좁게 사선 재단하였다. 치마허리는 조끼허리 형태가 아닌 일자형에 가는 어깨 끈을 달았다. 저고리 길이가 짧기 때문에 치마허리의 겹쪽에는 치마감과 동일한 옷감으로 하고 안쪽만 흰색 노방주로 하였으며 허리의 길이도 6cm로 짧고 특히 거드랑이 쪽은 2cm로 가늘게 하여 허리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림 26〉 1980년 취입식 한복용
운봉문 은박.



〈그림 27〉 1981년 취입식
한복용 공작문 자수.

3.6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2월 26일부터

1993년 2월 25일까지 제 13대 대통령으로 5년간 재임하였다. 김옥숙 여사는 1988년 취임식에 연한 주황색 명주로 만든 치마저고리와 같은 색으로 염색한 뉴뿔 두루마기를 입어 취임식에 처음으로 두루마기를 입은 영부인이 되었다(그림 28).

김옥숙 여사는 청와대 시절 '보통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눈에 띄지 않는 차림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따라서 금박이나 자수와 같이 눈에 띄는 화려한 장식보다는 주로 자연스러운 색의 조화로 한복의 멋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연한 미색, 흰색, 갈색, 겨자색, 회색 등의 침착하고도 가라앉은 색상의 한복을 즐겨 입었는데, 겉으로 얼듯 보기에는 중간 톤의 색상에 화려한 장식이 없어 소박해 보이나, 실제로 한복에 사용한 고급의 소재와 독특한 염색, 바느질 기법 등에서 대통령 부인으로의 품위와 세련된 이미지를 갖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김옥숙 여사는 한복의 색상이나 디자인을 유명 한복디자이너와 직접 의논하여 결정하였고, 손지갑이나 신발 등의 악세사리뿐만 아니고 속치마와 버선의 선택까지도 무척 세심한 신경을 쓸 정도로 외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지대하였다. 따라서 김옥숙 여사는 1990년 러시아 순방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해외나들이에서 산수화를 그려 넣은 한복을 입거나, 전통문양을 수놓은 한복을 입는 등, 우리나라 한복의 아름다움을 홍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순자 여사가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예복으로서 한복디자인의 다양화 및 전통성을 알리는데 기여했다면, 김옥숙 여사는 한복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세련된 모습으로 알리는데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이 시기에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복에도 복고풍이 유행하였다. 따라서 저고리의 길어도 조금씩 길어지고 저고리의 색을 치마와 달리하면서 깃과 끝동 고름을 다른 색으로 한 회장저고리가 유행하였으며 덧저고리, 누비저고리, 긴 두루마기의 착용이 부활하였다. 따라서 김옥숙 여사의 한복도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고 깃과 동정이 넓어진 복고풍으로 변화하였으며, 깃과 고름, 수구에 가는 선을 넣거나 잣물림, 싯코 싸기 등 개화기에 유행하였던 전통 기법을 활용하여 전통한복의 단아한 멋을 보여 주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취임식에 입었던 치마저고리, 두루마기 이외에 함께 착용한 목도리와 핸드백, 장갑, 가죽신 등 소품 일체도 제공해 주었다.

〈도판 32, 33〉은 취임식에 입었던 저고리와 치마로 길감은 다듬은 명주를 엮은 주황색으로 염색하였으며, 안감은 노방주로 하였다. 저고리 길이는 26cm 정도로 전 시기에 비하여 길어졌으며 치마는 38cm나비의 직물을 사선으로 재단하여 11폭을 이어 총 418cm로 매우 넓게 만들었다. 따라서 치마의 실루엣은 A-line을 이루었고 노방주와 생고사로 만든 속치마를 받



〈그림 28〉 1998. 2. 26. 취임식날.

쳐 입었다. 치마허리는 조끼허리 형태로 흰색의 목아사로 만들었다.

〈도판 31〉역시 위의 치마저고리 위에 입었던 두루마기로 치마저고리와 동일한 색으로 염색한 뉴똥으로 만들었다. 겹감으로 사용한 뉴똥에는 〈그림 29〉와 같이 절지형의 작은 꽃무늬와 수(壽)자 무늬가 드문드문 배열되었는데, 바탕은 강한 S연과 Z연의 꼬임을 준 위사가 교대로 위입된 평직이고, 무늬는 수자직으로 제작되었다. 안감은 겹감과 유사한 색의 장지문단으로 하였고 안감과 겹감의 연결에는 가는 선을 두르거나 새발뜨기를 하여 장식하였다. 당시 두루마기의 길이는 전 시기에 비하여 비교적 길게 입는 것이 유행이었으며 겹감과 동일한 옷감으로 목도리를 둘렀다. 목도리의 양끝에는 같은 색의 끈사로 매듭을 엮어내려 모든 것이 동일한 색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피하였다.

〈도판 34, 35, 36〉은 장갑과 손지갑, 신발, 등의 악세사리인데, 장갑은 신축성소재로 만들고 위부분에는 레이스 장식된 기성품이었다. 손지갑은 흰색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그림 30〉과 같이 금은사로 연화문을 수놓아 한국적인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신발은 양장용 구두 맞춤집에서 고무신 모양으로 만든 가죽신이었다.



〈그림 29〉 두루마기용 뉴똥 문양.



〈그림 30〉 손지갑 자수 문양.

3.7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26일부터 1998년 2월 25일까지 제 14대 대통령으로 5년간 재임하였다. 1993년 취임식에 손명순 여사는 분홍색 명주에 꽃무늬를 수놓은 옷감으로 만든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입고 어깨에는 두루마기와 같은 옷감에 화려하게 수 놓은 술을 둘렀다(그림 31).

손명순 여사는 튀는 색상을 싫어하고 치마저고리를 동일 색으로 입는 것을 좋아하였다. 동일 색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저고리의 깃과 섹션, 도련, 수구에 가는 선을 두르고 치마저고리에 화려하게 수놓아 장식한 디자인을 매우 선호하였다.

손명순 여사의 외모는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한복이 잘 어울리는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대통령 부인들에 비하여 국내외의 공식행사에 비교적 양장을 즐겨 입었다. 특히 스탠드칼라가 달린 박스형의 자켓 상의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주름치마는 손명순 여사가 즐겨 입었던 차림이었는데 이러한 영부인의 양장을 선호하는 의복태도는 상류층의 한복입기에 영향을 끼쳐 이즈음부터 정치·경제계 부인들의 공식 회합이나 TV에 출연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한복을 착용하는 사례가 점차 줄어들었다.

이번 전시회에 손명순 여사의 한복은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손명순 여사의 한복을 주로 만들어준 디자이너가 제공한 한복이 한점 있다.



〈그림 31〉 1993. 2. 25 취임식날 아침, 동아일보

〈도판 37, 38〉은 여름용 한복으로 미국 순방시 L.A.에서 입으려고 장만한 모시치마저고리인데 그곳 날씨가 추워져 의상실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한다.

옥색의 모시의 저고리이지만, 앞길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 저고리의 길이는 25.5cm이며 깃과 소매 끝, 고름에 은사와 청색의 끈사를 사용하여 징금수를 놓았다. 깃과 고름에 엮은 회색으로 선을 대어 장식하였다. 치마는 옥색의 모시 11폭을 이어 만든 홀치마로 치마하단에 은사와 청색의 끈사를 사용하여 징금수로 장식하였다.

3.8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회호 여사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 25일 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제 15대 대통령으로 5년간 재임하였다. 이회호 여사는 1998년 취임식에 분홍색 명주로 만든 치마저고리와 좀더 얇은 분홍색으로 염색한 명주 두루마기를 입었다 〈그림 32〉. 그러나 취임식이 끝나고 저녁 만찬시에는 〈그림 33〉과 같이 정장 투피스의 양장차림으로 참석하였다.

이회호 여사는 역대 영부인 중에 가장 연로하였으며, 연한 옥색, 미색, 보라색의 온화한 톤의 명주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청와대에 들어간 초기에 한복을 입고 골절상을 입어서 그 후부터는 한복의 미 보다는 실용성에 목적을 두어 치마의 폭이 좁아지고, 길이도 발등 위로 올라가도록 짧게 만들었다고 한다.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장을 착용하였는데 영국의 대처수상의 옷차림을 좋아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회호 여사의 재임기간에는 한복을 입은 모습보다는 단정한 수트차림의 양장을 한 모습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였다.

〈도판 40, 41〉은 취임식에 입었던 치마저고리로 분홍색 다듬은 명주로 만들로 안감은 같은 색 노방주를 넣었다. 저고리 길이는 25cm 정도로 전시기와 비슷하지만 깃나비와 동정나비는 각각 4.5cm, 1.6cm로 넓어졌으며 고름이 길어지고 저고리 여밈이 올라갔다.

치마는 32cm나비의 명주 8폭을 이어 자연스런 흐름을 주었으며 역시 치마폭의 위쪽은 좁게 사선재단을 하였다. 치마허리는 겹감과 같은 명주로 만들었으며 흰색의 어깨 끈을 달아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였다.

〈도판 39〉역시 취임식에 입었던 두루마기로 치마저고리 보다 얇은 연분홍 명주로 만들었다. 두루마기의 안감은 겹감과 같은 명주로 하였으며 깃, 쏘, 무, 수구, 도련 끝에 조금 더 진한 분홍색의 명주



〈그림 32〉 1998. 2. 26, 취임식.

로 가는 선을 둘렀다. 두루마기 길이는 113cm 정도로 전시기보다 길어지고, 깃 나비와 동정 나비도 각각 6.3cm, 2.0cm로 넓어졌으며 고름도 길어졌다.

4. 마침글

이상으로 한국전쟁 이후 50여 년 동안 한복이 일상복에서 예복으로 정착되어가는 변천 과정을 문헌자료와 함께 대통령 부인 복식이라는 실물자료를 통하여 재조명하였으며, 역대 영부인들의 한복 실물자료들을 조사하여 각각의 특성과 멋을 찾아내고, 한복 패션리더로서 영부인의 역할을 연구하였다.

한복패션도 서양복에서와 같이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유행이 발생하는데, 해방 이후 한복 패션은 여러 배경 중에서도 섬유산업의 발전이라는 경제적 요인과 영부인의 한복 입는 복식 태도가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1950년대는 고름대신 브로치를 달거나 짧은 통치마를 입는 등 개량한복이 유행하였는데 6.25 전쟁 후 미국문화가 유입되어 사회전체에 만연한 서구 지향적 분위기 이외에 프란체스카여사와 같은 외국인 영부인이 실용성에 근거하여 개량 한복을 입었던 태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1960-1970년동안 한복을 즐겨입으며 동시에 우아하게 잘 입는 육영수 여사는 한복 패션의 리더가 되었으며, 당시에는 일반인은 물론 사회지도층 여성들도 중요한 행사에 한복을 애용하였다. 따라서 건직업은 물론 인조양단, 함성양단 등 한복용 섬유산업이 매우 발달하였으며, 전문적 한복 맞춤집이 출현하였다.

1980년대는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서 한복도 고급화를 이루었으며, 역사복식 고증을 통한 전통한복이 강화되었다. 더욱이 이순자 여사가 복식사의 학문적 근거 의하여 한복을 착용하였으므로, 한복이 예복

로서 좀 더 다양화될 수 있었고 격식을 갖추어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따라서 한복이 예복으로 정착되었고, 한복디자인 업계의 활성화를 이루었다.

1990년대는 세계화 속에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시기로 한복은 더욱 더 복식사등 학문적 접근을 통해 복고풍을 띠며, 고증에 의해 디자인된 한복이 강세를 이룬다. 바느질 기법도 옛것이 재현되어 누비, 잣물림, 조각잇기, 천연염색 등이 유행되었다. 여기에는 한복을 세련되게 입었던 김옥숙 여사의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한복착용은 점차 축소되는데 이는 손명순 여사나 이희호 여사가 양장을 선호하고 한복 패션의 리더 역할을 하지 않았던



〈그림 33〉 1998. 2. 26. 취임식후 만찬, 동아일보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현대 한복의 역사는 역대 영부인의 의복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영부인중에도 오랜 기간동안 재임하였던 대통령 부인들의 영향력이 컸고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 공덕귀 여사나 최규하 대통령의 부인 홍기여사 등은 변동기에 짧게 자리하여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참고문헌

- 고승현. (1996). 한국의 퍼스트레이디. 밀알.
- 김상대. (1994) 「진주지역 중소기업 성장전략에 관한 정책토의」, 진주시.
- 김유경. (1994). 옷과 그들. 삼신각.
- 동양나일론(주). (1976). 동양나일론 10년사. 동양나일론 주식회사.
- 이경자. (1983). 한국복식사론, 일지사, pp.330-346.
- 이은진. (2001). 해방이후 한복용 소재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5권 5호, pp.868-879.
- 여원. (1956). 우리 의식주의 개선.
- 황의숙. (1995). 한국여성전통복식의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코오롱(주). (1977). 코오롱 20年史.
- 한국화섬협회. (1993). 한국의 화섬산업. 한국화섬협회.
- 동아일보. (1973. 2. 13.). "생활백과".
- 동아일보. (1967. 7. 2.). "잔치날의 주부 퍼스트레이디".
- 조선일보. (1952. 8. 31.). "생활개선법 시행령".
- 동아일보. (1956. 8. 23.). "올여름 양장표정 지나친 노출복의 비애".
- 조선일보. (1957. 8. 8.). "어떻게보는가 노출증".
- 동아일보. (1977). 명절나들이 한복 "늘어나는 한복전문점".

작 품 목 록

1 두루마기 周衣

1948년 Overcoat for Men, Linen 길이 118cm 화장 73.5cm

2 저고리 赤古里

1950년대 Jacket for Men, Silk 길이 44cm 화장 72cm

3 버선 襪

1950년대 Socks for Men, Cotton

4 바지 赤亻

1950년대 Trousers for Men, Silk 길이 102cm

5 저고리 赤古里

1960년 전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32.5cm 화장 63cm

6 치마 赤亻

1960년 전후 Skirt for Women 길이 105cm

7 중절모와 구두

1960년 Shoes and Hat for Men

8 취임식 예복

1960년 Tuxedo for Men, Wool

9 두루마기 周衣

1960년대 Overcoat for Women, Silk 길이 123cm 화장 74.5cm

10 반희장 저고리 半回装 赤古里

1960년대 Jacket for Women, Linen 길이 29.5cm 화장 72cm

11 치마 赤亻

1960년대 Skirt for Women 길이 113cm

12 저고리 赤古里

1960년대 Jacket for Women, Linen 길이 29cm 화장 75cm

13 치마 赤亻

1960년대 Skirt for Women 길이 113cm

14 저고리 赤古里

1960년대 Jacket for Women, Linen 길이 29cm 화장 75cm

15 핸드백

1960년대 Hand Bag for Women

16 봉황 자수

1964년 Skirt for Women

17 저고리 赤古里

1980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28.5cm 화장 67cm

18 치마 赤々

1980년 Skirt for Women 길이 108.5cm

19 저고리 赤古里

1980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28.5cm 화장 67cm

20 치마 赤々

1980년 Skirt for Women 길이 117cm

21 저고리 赤古里

1980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28cm 화장 66.5cm

22 치마 赤々

1980년 Skirt for Women, Silk 길이 113cm

23 저고리 赤古里

1980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22.5cm 화장 69cm

24 치마 赤々

1980년 Skirt for Women, Silk 길이 120cm

25 봉황 자수

26 당의 唐衣

1981년 Ceremonial Long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84.5cm 화장 71cm

27 저고리 赤古里

1981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22.5cm 화장 69cm

28 치마 赤々

1981년 Skirt for Women, Silk 길이 117.5cm

29 반회장 저고리 半回裝 赤古里

1980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23.3cm 화장 69cm

30 치마 赤々

1980년 Skirt for Women, Silk 길이 120cm

31 두루마기 周衣

1998년 Overcoat for Women, Silk 길이 125cm 화장 74cm

32 저고리 赤古里

1988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25.5cm 화장 72.5cm

33 치마 赤々

1988년 Skirt for Women 길이 118cm

34 신발

1988년 Shoes for Women

35 목도리

1998년 Scarf for Women, Silk 길이 170cm

36 핸드백과 장갑

1998년 Hand Bag and Gloves for Women

37 저고리 赤古里

1990년대 후반 Jacket for Women, Linen 길이 25.5cm 화장 69cm

38 치마 赤々

1990년대 후반 Skirt for Women, Linen 길이 117cm

39 두루마기 周衣

1998년 Overcoat for Women, Silk 길이 112.5cm 화장 72.5cm

40 저고리 赤古里

1998년 Jacket for Women, Silk 길이 24.7cm 화장 71.5cm

41 치마 赤々

1998년 Skirt for Women, Silk 길이 113.5cm

42 장갑, 목도리와 술

1998년 Gloves, Scarf for Women, Silk, 길이 190cm

영부인 예복으로 본
韓服의 흐름
근세에서 현대까지

인쇄 2004년 5월 1일

발행 2004년 5월 10일

전시디자인 및 진행 임수진 · 최지연 · 김소연

책임진행 이덕실 · 장경수

사진 황현만

편집디자인 에이앤에이(주) T. 730 · 1995

발행인 문영혜

발행 경운 박물관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52번지 T. 3463 · 1336

<http://www.kyunggi.or.kr>

본 도록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은 경운박물관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